

## 제4차 논문분과 위원회 활동

김창용<sup>1)</sup>, 김동수<sup>2)</sup>, 이 승원<sup>3)</sup>

### 1. 머리말

본 논문분과위원회는 제 4차 YGEC (Young Geotechnical Engineers Conference; 이하 YGEC)의 Proceeding 발간과 Souvenior magazine 발간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제 3차 YGEC를 참여했던 KAIST 토목공학과와 김동수 교수,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창용 박사, 현대건설 기술연구소의 이승원 박사 등 총 3명이 각자 맡은 임무를 무리없이 수행하여 논문집과 Souvenior magazine을 완성하였다.

본 고는 4차 YGEC 준비기간 동안 및 행사당일 논문분과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아울러 준비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미흡했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향후 지반공학회에서 준비중인 각종 대회 등에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작업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각종 에피소드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 1.1 논문분과위원회 주요 업무

본 논문분과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제 4차 YGEC의 Proceeding 발간과 Souvenior magazine 발간을 가장 큰 목표로 하여,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관련 작업들을 수행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그동안 논문집 및 Souvenior작업을

수행하면서 굵직하게 수행했던 업무를 분류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논문집 발간을 위한 주요 업무는

- 1) Paper 양식 결정,
- 2) Paper 접수 및 분류,
- 3) Session 분류 작업,
- 4) 논문집 형식,
- 5) 논문집 편집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Souvenior발간을 위한 주요업무는

- 1) Souvenior용 C.V.(Curriculum Vitae)형식 결정,
- 2) Souvenior 형식 및 구도 결정,
- 3) Souvenior용 C.V. 편집,
- 4) Souvenior 최종 편집 등을 들 수 있었다.

논문 발표는 네 분의 Keynote Lecturer와 10명의 National nominee 그리고 11편의 일반 논문발표자들 등 총 2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Geotechnical Problems in Asia라는 주제로 Special Session에서 총 10편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논문집 준비과정에서 발표를 취소하였거나 중간에 갑자기 발표를 신청해 온 경우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논문집을 만들어야 하는 본 분과위원회에서는 급한 경우 직접메일을 띄워 논문을 e-mail로 받는 경우도 있었고, 논문 형식이 전혀 우리 양식에 맞지 않게 보내온 경우, 그림을 보내오지 않아서 다시 신청한 경우, hard copy만 보내오고 파일은 보내오지 않은 경우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국내 발표자들의 논문은 연락을 바로 취할 수 있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지만 외국 발표자들의 경우는 짧은 시간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sup>1)</sup> 정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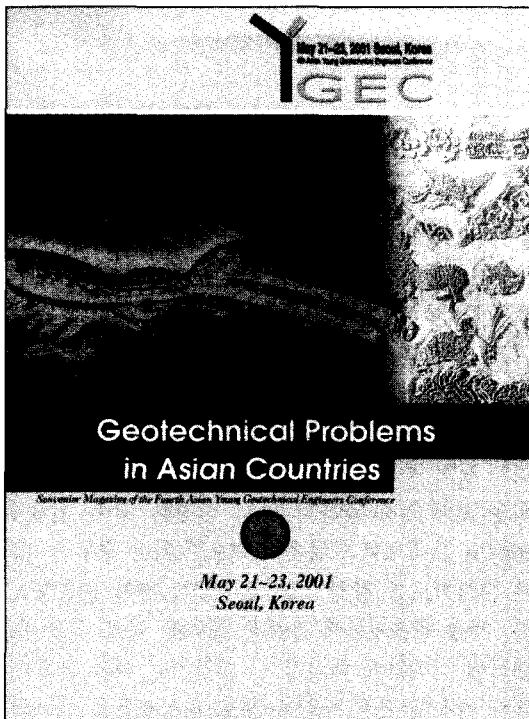
<sup>2)</sup> 정회원, 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

<sup>3)</sup> 정회원, 현대건설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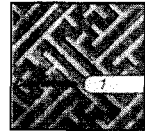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학회 직전에 직장이 바뀐 참가자의 경우 그 사람의 소속을 표현하고 있는 모든 곳을 다시 수정해야하는 다급한 일도 벌어졌다. 이들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하고 원만하게 수정·보완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 할 수 있었다. 이렇듯 무수히 많았던 일련의 회의과정, 논문집 발간과정 및 Souvenir magazine 발간과정 등 수많은 얘기들을 남기고 4차 YGEC는 이제 끝이 났지만, 어딘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건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본 논문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썼던 도안 부분에는 좌우측 그림들과 같은 한국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상징물들을 곳곳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였다.

Proceeding과 Souvenir magazine의 겉표지 도안은 동일하게 아래 표지와 같이 구성하였다. 다가올 2002년도 월드컵 주 경기장의 야경과 경복궁 자경전의 꽃 문양을 주제로 해서 구도를 잡았으며,



그사이에 한국의 멋드러진 장고문양을 삽입하여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의 특징을 알리도록 하였다. 우측의 그림은 전통적인 장고문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논문집 및 Souvenir magazine 중간 중간에 본 YGEC logo를 고급스럽게 꾸민 금색 마크를 삽입하여 논문집과 Souvenir magazine의 품위를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Souvenir magazine 각 페이지마다 한국의 돌담문양이 새겨진 문양을 삽입하였고, 마지막으로 magazine 맨 뒷페이지에는 전통적인 단청문양으로 한국적인 향기를 극대화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형태로 Proceeding과 Souvenir magazine을 구성하고, 제 4차 YGEC의 품격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 1.2 Proceeding 발간

먼저 Proceeding 발간은 비교적 수월하게 작업이 이루어졌다. 대다수의 발표자들이 Camera-Ready로 원고를 작성해 왔기 때문에 원고 수정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미팅을 해도 폭탄은 항상 있는 법 그 중에도 속을 썩었던 몇몇 사례들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Keynote lecturer들의 원고는 거의 그대로 실어도 될 만큼 경륜이 녹아 든 원고들이었다. 별 수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가장 속을 많이 썩었던 원고는 아무래도 보름 전에 참가의사를 밝히고, 보내온 Syria의 Yamani의 원고였다. 파일 자체가 열리지도 않고, 보내온 hard copy는 전혀 우리 양식에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폰트 크기도 다소 틀려 보였다. 또한 그림들도 흑백사진들로써 인쇄할 경우 품질이 매우 좋지 않을 것 같았다. 논

표1. 각 Session별 주제 및 논문편수

구분	주제	논문편수		총 논문편수
		국내	국외	
Keynote lecture	지반공학 전 분야	2	2	4
Session I	Site Investigation and Engineering Properties	3	2	5
Session II	Ground Improvement and Soft Ground Engineering	1	3	4
Session III	Foundation Engineering	3	1	4
Session IV	Ground Excavation and Retaining Structures	0	4	4
Session V	Tunnels and Slopes Stability	4	0	4
Special Session	Geotechnical Problems in Asia	(3)	(7)	(10)
총계(괄호는 Special Session 발표)		13(3)	12(7)	25(10)

문집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원고가 도착했을 때, 매우 황당했던 기억이 지금도 난다. 그나마 많은 수정을 통해서 원고를 재작성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행사당일에는 Yamani의 적극적인 질문공세(?)에 시달렸던 기억도 난다. 그렇지만 행사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가장 순진하고 따듯했던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한편, 원고 작성 양식을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ARC 대회처럼 Balkema 양식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양식을 만들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전통적으로 아시아 지역 YGEC 대회에서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자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형식을 결정하였고, 우리도 독자적인 양식을 작성하여 총 6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원고 작성 지침을 만들었다. 물론 Keynote lecturer는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도록 가이드를 두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발표원고가 25편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하였을 것 같아 논문집이 두툼했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보내온 각 논문의 Session 분류 작업이었다. 지반공학 분야 자체가 매우 다양한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논문 Abstracts만 가지고서 Session분류하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특히, 외국 발표자의 경우 도착날짜가 발표날짜보다 늦는 경우, 이를 재조정한다든지, 당초

Abstracts를 보내올 당시만 해도 참여 의사를 보였다가 행사 준비 막바지에 취소한 경우, 행사 보름 전 다시 참가의사를 밝혀 온 경우는 정말 황당한 경우가 아닐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Session은 총 5개로 분류하였고, 각 Session별로 발표될 논문을 분류하였다. 이때, 각 논문 당 발표시간(15~20분)과 Keynote lecturer의 발표시간(50분) 및 Discussion 시간 등을 고려해서 논문의 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미 논문은 제출했지만 발표하기가 어려운 국내 발표자 두 사람의 발표시간을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Session 분류를 알맞도록 구성하였다. Keynote lecturer 네 분 중 한국인 두분(홍성완 박사, 이인모 교수)이 Conference 처음과 끝을 장식하도록, 첫날(5월 21일) 홍성완 박사의 강의와 마지막날(5월 23일) 이인모 교수의 강의를 배정하였다. 두분의 외국인 Keynote lecturer는 모두 둘째날(5월 22일) 발표하도록 전체 일정을 계획하였다. 각 Session 별 주제와 논문구성은 표 1과 같다.

한편, 본 논문집은 국제 간행물 번호 ISBN 89-852197-0-X로 등록되었으며, 이 번호를 얻기 위해서 우리 학회의 강현옥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였다.

### 1.3 Souvenir Magazine 발간

Souvenir magazine을 발간하기 위해서 2000

년 영국에서 있었던 국제 YGEC와 아시아 지역 제 3차 YGEC의 Souvenir magazine을 참고하였다. 국제 YGEC의 magazine은 구성면에 있어서 하나의 잡지처럼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시간적인 문제로 작성이 어려웠다. 반면에 3차 YGEC의 magazine은 주로 저명인사들의 축하 메시지, 행사 진행 Schedule, 참석자들의 Curriculum Vitae 등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행사에서는 3차 YGEC의 Souvenir를 참고하기로 하였고, 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명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와 행사 진행 Schedule, 참석자들의 C.V. 등의 구성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행사 진행 시 편의를 위해서 행사장의 위치 및 약도 등을 포함시켜서 참석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저명 인사들의 메시지는 ISSMGE의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상규 교수님과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이시며 본 행사의 Chairman으로 역할을 해주신 김수일 교수님 등 두 분께서 각각 축하메시지와 환영 메시지를 보내 주셨다. 그리고, 논문발간 시 결정된 Keynote lecture와 각 Session 별 논문제목과 발표자 그리고 각 Session 별 Chairman 및 Discussion leader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각 날짜 별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행 Schedule을 Souvenir Magazine에 담도록 하였다. 아울러 본 행사 준비에 수고하신 조직위원회 멤버를 소개하고, Keynote lecturers, Authors, Participants, 그리고 Organizing staff 등에 대한 Curriculum Vitae를 담도록 하였고, 전체적인 행사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고 각 행사 장소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Curriculum Vitae에는 참석자의 사진, 현재 직장과 교육과정, 그리고 현재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반공학 분야, 연락처 등을 신도록 하였다. 3차 YGEC Souvenir Magazine에는 연락처가 빠져 있어서 아쉬웠던 점을 감안하여 전화번호, Fax 및 e-mail주소까지 넣도록 하였다.

## 1.4 Special session 토론

본 4차 YGEC의 주제를 “Geotechnical Problems in Asia”로 결정하고 각 나라의 지반공학 문제점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이 같이 토의하는 Special Session을 포함하였다. 처음에 Session을 구성할 당시에는 발표수가 적으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나에 대한 걱정이 앞서, Session의 좌장을 맡은 김동수 교수가 몇 개의 토론 주제를 back up으로 준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 나라의 National Nominee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0명의 발표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상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Special Session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표되었고, 이들 문제점에는 시공품질확보, 사면안정, 지하공간건설, 지반지진공학, 연약지반, 지반환경 등 지반공학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건설여건이 열악하여 각 나라로부터 건설장비 지원 및 건설 참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Special Session을 통하여 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지반공학 문제점을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자신의 전공분야와 접목하여, 향후 자신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 2. 맺음말

제 4차 YGEC 논문집 및 Souvenir magazine을 만들면서 좋은 경험도 많았고, 아쉬웠던 점들도 많았다. 제 5차 YGEC 개최국으로 결정된 대만에서 이번 4차 YGEC에 observer자격으로 참석한 대만 국립대의 Jeng 교수는 이번 4차 YGEC에 참여해서 많은 부담을 안고 간다고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준비위원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